

**종합·해설**

# 여야 '안-박 단일화' 후속대책 착수

한 "안풍 사라질 것" 후폭풍 차단 주력

민주, 박원순 포함 통합후보 경선 올인

'안철수-박원순 단일화' 이후 여야는 7일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단일화가 이뤄진다고써 일단 '안철수 바람'이 사그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직·간접적 지원, 야권 통합논의 가속화 등에 따라 관계가 급변할 것으로 보고 단일화 후폭풍 차단에 주력했다. 우선 야권을 향해 '구태·야합 단일화 쇼'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한나라당은 또 안철수-박원순 단일화 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거물급 인사를 중심으로 '대항마' 찾

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정은 사무총장은 이날 "야권에 서 누가 후보가 되든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외부영입을 위해 복수의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 인사로는 김황식 총리, 정운찬 전 총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나경원 최고위원이 야권 통합후보와 승부를 겨룰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주장도 강하게 나온다. 한 핵심 당직자는 "마땅한 외부인사를 찾기도 쉽지 않은 만큼 나 최고위원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박 이사의 민주당 입당 여부가 큰 변수"라며 "기호 2번이 아닌 경우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박 이사와 어떻게 교감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상임이사는 같은 방송에 출연, "어떤 특정 정파나 지금 특정 정당의 대표로서라기보다는 또 다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경선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순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 '선(先) 정당' 후보 선출(후) '단일화' 방식과 야권 후보 전체가 한데 모여 경선을 치르는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박 이사의 민주당 입당 여부가 큰 변수"라며 "기호 2번이 아닌 경우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박 이사와 어떻게 교감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상임이사는 같은 방송에 출연, "어떤 특정 정파나 지금 특정 정당의 대표로서라기보다는 또 다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경선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순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 '선(先) 정당' 후보 선출(후) '단일화' 방식과 야권 후보 전체가 한데 모여 경선을 치르는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故 이소선 여사 노제 참석**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7일 오후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열린故 이소선 여사 노제에서 조사를 남들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야권 서울시장 통합후보 선출 빨라지나

민주 '이기는 후보' 위해 '통큰 양보' 가능성도 내비쳐

문재인 이사장 '범시민 야권단일후보 추진기구' 제안

'안철수-박원순 단일화 이후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야권통합기구인 '혁신과 통합'이 전날 출범, 후보 단일화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과 통합'은 대안과 비전을 갖춘 '민주진보 연합정당' 창당을 기치로 내걸고

우선 10·26 재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상임대표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또 야 4당을 포함한 야권에 '범시민 야권단일후보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도 '이기는 후보' 만들기를 선언하고, 후보 단일화에 본격 시동

을 걸었다. 손학규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원장과 박 변호사의 단일화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상서로운 출발이냐 야권통합후보 선출에 동력이 붙었다"며 "통합 단일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뭉드 마음도 활짝 열어 놓고 있다"며 '통큰 양보'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응징해야 한다고 말한 안 원장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야권 통합 경선을 통해 이기는 후보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도 '이기는 후보'에 방점을 두고 당내 경선은 물론 범 야권 통합 경선 참여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 전 총리와 시민사회의 대표주자로 안 원장의 지지를 받는 박 변호사가 경선을 치르는데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노-국참당 통합속도 '급물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간의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협상이 지난 4일 결렬되자 민노당은 6일 밤 수임기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중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 참여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18일 또는 25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관계자는 7일 "임시 대의원

대회는 참여당을 통합의 대상으로 확인하고 통합 협상 권한을 수임기관에 부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빠르면 이날 안에 통합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당도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8일 예정된 중앙위원회 회의에 민노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골수 기증자 변심 탓에 검사비 수억원 날렸다

골수 기증에 동의했다가 마음을 바꿔려는 사람들로 인해 낭비된 세금이 3억8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영광·함평·장성)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골수기증에 동의했다가 막상 대상자가 나타나 기증을 거부한 수는 동의자

6552명 중 2708명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골수이식을 위해 조직 적합성항원(HLA)의 일치 여부를 따지는 검사비용으로 기증 희망자 1명당 14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철회로 총 3억8000만원이 낭비된 셈이다. 거부 사유 중 본인이 거부한 경우가 1628명, 가족 반대 1053명, 회사 규정 등 기타 사유가 27명이었다. 이 의원은 "환자의 잘못된 상황과 국민 세금의 소중함을 헤아려 희망자를 신중히 모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원순, 선거 준비 본격화

민주진보 진영 인사 잇달 만나 야 단일후보 이미지 굳히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본격적인 선거전 준비를 본격화했다. 박 상임이사는 우선 진보 시민사회 진영의 대표주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지난 6일 백두대간 주중을 끝낸 후 첫 일정으로 이(故) 이소선 여사의 빈소를 방문한 데 이어 7일에는 이소선 여사의 노제

가 열린 청계천 전태일다리를 찾았다. 저녁에는 대학로에서 '박원순 시민후보 추대모임'이 마련한 '원순씨와 함께 꿈꾸는 서울' 행사에 참석했다. 이 모임에는 김기식 남문인숙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준비위원장, 조국 서울대 교수 등 2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모임은 추대사에서 "서울시장 보선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집권세력에 대

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라며 "야권은 분열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상임이사는 공식 출마 전에 민주진보 진영의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야권 단일후보 이미지 굳히기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또 야권 대통합의 큰 축인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당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철수, 박근혜도 제쳤다

대권후보 여론조사, 안 43.2%,朴 40.6% 지지율

애초 서울시장 후보로 압도적 인기를 누리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이번에는 대권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지난 6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자대결에서 안 원장은 43.2%, 박 전 대표는 40.6%의 지지율을 얻었다. 박 전 대표가 지는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박근혜

대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그간 안정적인 30%대의 지지율로 줄곧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경기·인천(49.3%대 34.1%)과 대전·충청(49.8%대 32.3%), 광주·전남(55.1%대 21.0%), 전북(68.4%대 13.2%)에선 안 원장이, 서울(42.6%대 39.2%)과 강원(52.8%대 40.7%), 부산·경남·울산(47.4%대 37.1%), 대구·경북(66.6%대 25.0%), 제주(70.4%대 29.6%)에선 박 전 대표가 각각 우세

를 보였다. 세대별로는 안 원장이 20대(48.1%), 30대(58.2%), 40대(45.7%)의 고른 지지를 받았지만, 박 전 대표는 50대 이상에서만 57.2%의 지지율로 안 원장을 추월했다. 또 같은 날 민영통신사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회사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안 원장은 박 전 대표를 제쳤다. 안 원장 42.4%, 박 전 대표 40.5%였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한나라당 내에서는 '박근혜 대세론'이 꺾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없이는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기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은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스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스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적을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8호

### 여성가족부 인정 2011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 2011년 9월 20일(화) ~ 11월 24일(목) 매주 화, 목 오후 6:00~
- 접수기간 : 2011년 9월 9일(금)까지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2만원
  -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족)
  - ※ 수강료를 환불받으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 (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자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 ④ 사진 2매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